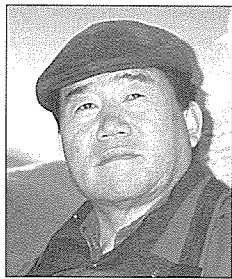


森林과 우리생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으로, 이 삼림(森林)은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공급해 주고 있다. 삼림은 물을 저장하는 탱크역할을 해 홍수를 막아주고 오염된 빗물과 공기도 정화해주고 있으며 목재를 공급해 주고 있어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나무를 심고 인내를 갖고 정성들여 가꾸는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全尙根

〈경희대학교 산업대학장/한국임학회장〉

까? 산은 오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삼림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나 기능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또 그러한 가치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들은 내가 나의 일을 위해 30여년을 넘게 산을 오르내리면서 스스로 듣는 질문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은 국토의 65%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이다. 지구차원으로 보면 육지면적의 32%가 산인데 우리는 이의 2배나 되는 면적을 가진 산림국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산업사회 같이 생활환경문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가늠하는 평가지표의 하나로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는 대단히 복받은 여건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전문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일반적인 목적은 산을 오르는 육체적 운동과 삼림 속에서 접하는 신선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정신적으로 평온한 풍요를 만끽하는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찾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분명히 현대를 사는 많은 도시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삼림의 보건휴양 가치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삼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림은 우리에게 많은 생활자원을 공급해 주어 왔다. 옛부터 '산' 하면 나무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나무를 베어 집도 짓고 필요한 가구도 만들어 써 왔으며, 밥을 짓거나 추운 방을 따뜻하게 덥히는데에도 이용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생활 속에서 목재라는 자재없이 살 수도 없고, 질 높은 문화생활의 향유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삼림이 생산한 목재와 기타 생산물(산채나 열매, 약품이나 공산품의 원료 등...)은 중요 경제자원이다. 목재생산과 이용은 인류의 필요에 의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목재 소요량의 95%를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무역적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해 내느냐 하는 현실적 중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간의 시간과 자본 그리고 국민들 특히 정치인들의 굳은 의지와 철학없이 불가능하다.

목재 등 삼림혜택 연간 34조원

삼림은 인간생활의 환경을 보호해

요즈음 주말이 되면 도시를 빠져 나가는 사람들의 자동차로 도로가 매우 복잡해진다. 모두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취미와 목표로 계획하는 곳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계절 통틀어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 같다. 비록 주말이나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소도시나 대도시를 막론하고 적지않은 사람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산을 오르고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산을 찾아 갈

주는 자원의 역할을 크게 해준다. 우리나라 삼림 전체에 대한 이러한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계량화하여 본 결과 1995년도를 기준으로 1년에 34조6천백10억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우리국민이 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당해년 국민총생산의 10%에 해당하며 국민 한사람에게 78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삼림은 물을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해준다. 삼림의 이러한 역할은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갖게 되고 저장된 물을 서서히 탱크로부터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여름철 가뭄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북한은 삼림이 황폐되어 홍수와 가뭄의 피해로 식량부족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삼림은 오염된 빗물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준다. 이 역할은 주로 삼림토양이 하게 된다. 삼림토양에는 풍부한 유기물이 포함되어 많은 공극(空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침투가 용이하다. 또한 물리·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그 속을 통과하고 있는 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흡수하거나 치환하는 능력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삼림토양 속을 빗물이 통과하는 사이 삼림토양의 다양한 기능에 의해 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림의 지표면은 떨어진 나뭇가지나 낙엽 그리고 지표식생으로 덮여 있어 토사의 유출 및 붕괴를 막아주며, 낙석이나 산사태를 방지해 줌으로써 국토를 보전해 준다.

삼림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준다. 우리나라 삼림은 광합성작용에

의해 연간 8천8백만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 2천4백만톤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9백만톤을 흡수하며 기타 먼지 3.7만톤, 아황산가스 5.7만톤을 정화해 준다.

삼림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며 야생조류는 많은 해충을 포식하여 삼림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삼림은 보건휴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약간 언급되었으나 최근 산을 찾아 삼림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것은 삼림 속에서 발산되는 많은 산소와 향기 그리고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이 숲 속의 공기를 신선하게 해주어 온 몸을 그 속에 던져버리므로써 쾌적하고 평온한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흡수막고 오염된 공기도 정화

이외에도 바람을 막아주고 기온도 조절해주고 소음도 막아주며 화재가 번지는 것도 막아주는 등 우리 생활을 보호해 주는 많은 역할을 해 준다.

이상에서 언급한 삼림의 경제적·환경적 및 보건 휴양적 자원의 가치는 인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림생태계의 보전을 주장하는 것이다.

삼림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는 계속적인 생명활동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계속 움직이고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은 삼림생태계를 자연의 힘에 의해 그대로 변화되도록 그냥 두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결국 생태계 구성 인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히 생물군에 대해서는 그 생

물군을 구성하는 종(種)이나 개체의 보전을 위해 적절한 생태적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관리는 철저히 연구된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간섭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로 그대로 두면 환경의 변화로 보전되어야 할 중요 생물자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생물자원에 적합한 환경을 인간의 힘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결국 인간생활 환경의 보전도 인간의 생존을 위하고 생태계와의 건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자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무절제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급속한 파괴행위가 사막화를 초래하고, 미래의 인류가 이용하게 될 유전자자원인 생물종(種多様性)이 감소해 가는 등은 미래의 인간생존을 위해 큰 위협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건전한 삼림의 조성을 위한 적절한 생태적 관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정신이 모든 국민과 각 분야에 확고히 자리 잡고 지속되어 생활화 될 때만이 우리사회도 우리가 바라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이 시점에서 백년 후의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개인이나 국가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심려깊은 행동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나무를 산에 심고 오랜기간 인내를 가지고 정성들여 가꾸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루 아침에 크는 나무는 없다. 